

세가의 예술인쇄 교황도 인정



예술과 인쇄라면, 그다지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세가(대표 김승업)의 인쇄물을 보면 다르다. 그리고 세가의 김승업 대표를 만나게 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으며 대화를 나누게 되면 곧 공감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화의 끝날 무렵에는 인쇄는 대중적인 문화와 어울리는 것이며 고급스럽고 예술을 논하는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틀린 것이구나 하며 무릎을 치게 될지도 모른다. 그만큼 세가의 인쇄기술은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면이 뛰어난다는 얘기가. 특히 고급 인쇄 부문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한다.



○ 직원들과 새해를 맞아 단합과 도약을 다짐하는 김승업 대표(왼쪽에서 두번째)

현재 세가는 세계적인 3대 박물관의 하나로 유명한 바티칸의 미술 전시관에 세계적인 미술품을 비단에 복원, 제작한 작품들을 납품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뜻한다. 세가의 인쇄 기술력을 바티칸에서 인정했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티칸에서 이탈리아외의 다른 나라로부터 납품을 받은 것은 2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져 화제가 될 정도였다. 특히 3차레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알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예술인쇄가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통해, 사람들을 ‘선’으로 이끕니다”는 친필 서명까지 함께 수여 받는 영예를 더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사원과 기업은 공동운명체”라는 기업 이념과 “사원 개개인의 창조정신”이 이러한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한편, 세가는 자체적으로 인쇄의 등급을 6등급으로 분류해 고객들이 어떤 수준을 요구하더라도 뛰어난 인쇄 품질을 바탕으로 고객의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회를 가져다 준 IMF 위기

현재 세가와 김 대표가 현재 누리고 있는 영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오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다.

김 대표가 인쇄기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86년 2월. 처음에는 인쇄사를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유명메이커인 시노하라 인쇄기의 국내 대리점으로 국반인쇄기를 판매하는 것이 그의 업무였다.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내 300여대의 인쇄기를 팔면서 순조로운 영업을 계속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인한 고객들의 부도는 김 대표에게도 큰 시련을 안겨 주었다. 리스 구매했던 고객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금 회수도 되지 않고 기계도 팔 수 없는 그야말로 앞뒤로 꽉 막힌 처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고객으로부터 인쇄기를 인수하게 되었지만, 살던 집을 처분해야 했고 수중에는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았을 정도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어려운 처지였다. 그런 상황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거래처 및 관련회사들이 인쇄기 판매를 하던 김 대

Portfolio of SEGA Arts

1998년 5월 고품위인쇄연구소 설립

“모든 일은 할만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인쇄품질에 대한 상상의 한계를 넘는 예술인쇄까지 탄생시켰다. 고품위인쇄기술은 사진화상의 부족한 색채를 충족시켜 사진화상보다 훨씬 뛰어난 영상의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색채예술이다.

1999년 6월 AM600선 고해상도인쇄 기술개발
인쇄물을 루페로 들여다보면 잉크의 둥그란 점들이 보이는데 이것을 망점이라고 하며, 통상의 인쇄물은 망점의 밀도가 1인치당 150~175선이 보편적이다.

2001년 2월 FAM인쇄(AM700선 효과) 기술개발(세계최초)

FM인쇄는 '주파수변조'로서 컴퓨터 기술을 인쇄분야에 응용한 망점의 일종이다. 화상의 농염을 20~10미크론이라는 미세한 점의 집합으로 표현하고, 모아레가 없어 통상적인 AM인쇄방식(진폭수변조)보다 인쇄하기가 쉽지만 어두운 색의 재현에는 취약한 것이 단점이고 FM인쇄방식은 밝은색 톤의 표현에 취약하다. FAM인쇄는 밝고 어두운 면이 함께 어울리면서 색채의 강렬한 힘을 요하는 색채재현에 최적적이다.

2001년 5월 고농도 색채인쇄 기술개발

인쇄는 차고 꺼칠꺼칠한 느낌이 있는 반면 사진은 인쇄보다 농도가 두터우면서도 훈훈하여 대상의 실재적인 묘사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잉크를 30~50%정도 많이 바르는 고농도인쇄기법이 고농도색채인쇄이다.

2001년 7월 고휘도색채인쇄 기술개발

찬란한 색채표현이 요구되는 인쇄물에는 일반 잉크로는 발색이 어려워 형광잉크를 1~4색 사용하여 위화감없이 작품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고농도인쇄기법이다.

2001년 11월 세계 최초 7색인쇄 기술 개발

미술품을 인쇄할 때에는 CMYK만으로는 색채의 재현에 한계가 있어 부족한 색을 찾아 4원색 위에 덧칠하게 된다. 그렇지만 색은 섞으면 섞을수록 칙칙하고 탁하게 돼 인쇄물의 느낌은 '원작'과는 많이 다르게 된다.

Sega-Seven Color는 색채의 탁함이 없이 미묘한 색의 변화까지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작의 부족한 색까지도 표현이 가능하다.

2002년 5월 고채도 비단인쇄 기술개발

세가에서 특허를 받은 고채도 비단인쇄기술은 첫 테스트 인쇄에서 '비단천'이 흡수한 색의 일부를 다시 내뿜는 정도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빛의 특성을 시각효과로 융합하는 최고농도의 오프셋복합인쇄기법이다. 여기에는 세가가 개발한 FAM고해상도기법과 고농도기법, 고휘도기법과 8색 인쇄기법이 활용된다.

2002년 8월 흑백 네가필름 8도 분해 기술개발

색분해에서 네가필름으로 촬영한 것은 통상 사진인화지로 반사분해하는데 세가에서는 네가필름을 직접 8도로 분해하여 고해상도기법으로 하는 인쇄기술을 개발하였다.

표가 직접 인쇄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그가 전수받은 기술은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안정적으로 인쇄회사를 꾸려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생을 먹고 살수 있다고 하는 고급 인쇄 기술이었는데 그는 무려 5가지의 고급인쇄기술을 전수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세가는 국내 시장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예술인쇄 회사로 자리를 굳힐 수 있었다고 김 대표는 말한다.

장인 정신과 세가의 "이정표"

기술을 전수 받은 초기에는 말 못할 어려움도 컸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당시에 기초적인 기술력마저 떨어지는 형편이어서 고급 인쇄기술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했다.

그는 고급인쇄를 기본으로 자체적으로 오프셋인쇄의 품질수준을 세분화했다. 양식인쇄(서식, 리포트 등)에서부터 상업인쇄(잡지, 전단지, 명함, 초대장 등), 고품질인쇄(색채 품질이 요구되는 카탈로그, 작품집, 포스터 등), 고품격 인쇄(카탈로그, 달력 등), 고품위인쇄(입체감이 요구되는 고급캘린더, 자동차 카탈로그, 작품집, 도강 등), 정점인쇄(비단에 재현하는 복제 미술품, 성화, 탕화, 인물의 초상화 및 한지에 재현되는 탕화, 고전미술품 등) 등의 6등급으로 나누었다.

이 같은 기술력 확보를 위해 2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 했고 많은 시간을 투입해 고급 인쇄의 명가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동안 집중적인 투자로 아직까지 돈은 벌지 못했다며 김 대표는 웃음을 짓는다.

기초적인 기술을 확보한 다음에 세가의 열정적인 노력을 말해 주는 이정표는 적지 않다. 국내 최초 AM700선 효과의 인쇄기술 개발, 고농도 고휘도 색채인쇄, 7색 인쇄기술 개발, 고채도 비단인쇄 기술개발 특허 취득, 흑백 네가필름 8도 분해 기술 성공, 2004년 국내 최초로 바티칸 박물관에 비단 복원 예술품 납품, 제2회 서울인쇄대상 은상, 입선 동시 수상 등이 빛나는 땀의 결실로 열매 맺었다. 특히, 고채도 비단인쇄 기술의 개발은 탕화와 동양화는 물론 서양화의 퇴색한 명화까지 화가들이 사용한 재료의 찬란한 빛과 질감을 복원하는데 성공하며 "복제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게 되었다.



① 세가는 어떤 인쇄물에도 품위있는 인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충무로 은막길에 위치한 세가의 건물 전경
 ② 세가의 생산설비와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김 대표

한편으로 1998년 5월에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이 기준”이라는 신념으로 고품위인쇄연구소를 설립한 것이 화려한 기술개발의 원천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일본에 미술작품을 인쇄해 납품했을 때는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까지도 진품과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 납품할 작품에 인위적인 식별 표시를 별도로 인쇄하게 한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다. 그야 말로 현대판 “술거 (통일신라시대 화가로 황룡사벽에 그린 노승도에 새들이 앉으려다 부딪쳐 떨어졌다는 일화가 있다)”가 아닐 수 없다.

현실에 서서 이상을 향해 굳게 매진

이제 고급 인쇄회사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세가에는 적잖은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 대부분의 내용은 “아무래도 고급인쇄를 하니 비용이 무척 비싼 것 아니냐”, “고품질의 인쇄를 하다 보니 납기가 당연히 늦을 것이다”, “일반적인 상업인쇄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등이다. 이에 대한 김 대표의 대답은 간단명료하면서도 단호하다. 제일 낮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쇄품질과 대비해 보면 오히려 저렴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납기는 24시간 출력과 인쇄 시스템의 구축, 폭넓은 설비의 확충 등으로 정확하며 납기를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다는 고객의 평을 듣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단지 하나까지도 열과 성을 다해 한 단계라도 높은 품질의 인쇄를 한다는 것이 철칙이며 당연히 모든 등급의 인쇄물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출실적을 보더라도 이른바 보통 인쇄의 비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

그동안 인쇄기술의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온 세가와 김 대표는 앞으로도 더 높은 목표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바티칸에 납품하고 있는 만큼 미술품을 재현한 인쇄에 그치지 않고 도자기 등에 인쇄를 하여 명성과 경제적인 실리를 함께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엄청난 기술력 향상에 엄청난 투자를 감행한 세가만이 이런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와 거래를 한 고객이 반드시 이익을 내도록 하는데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한다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짙게 배어 있는 세가의 경영이념이야말로 말로 끊임없이 진보하는 세가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정표일 것이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